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성명/학번		학 번	
학과/전공	경영학과	파견대학	Czech University of Life Sciences Prague(CZU)
파견기간	2025년 1학기	파견국가	체코

본 자료는 다음 참가자들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문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작성한 것을 복사하거나, **성익이 결여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교환학생 파견 인정, 학점 이관 등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 표현 등 자유롭게 친구 및 후배들에게 이야기 하듯, 모든 항목에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서 작성한 후 **글로벌교류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iao33@hallym.ac.kr)**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을 "**파견대학명_본인 이름_학번**"으로 변경하여 송부 ※**마감일: 2025. 6. 30.**

1. 현지대학 신청 과정 (분량: 0.5~1장)

-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후, 현지대학에 지원할 때의 과정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 제출한 신청 서류 목록과 각 서류 준비 과정
- 현지대학의 신청 절차 및 전체적인 진행 일정
- 신청 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점과 해결 방법

선발된 후 24년10월29일에 온라인을 통해 첫 ot를 진행했습니다. 전반적인 서류준비와 절차등을 설명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첫 째 주쯤 국제배송으로 CZU의 입학허가서와 거주확인서(JIH기숙사 주소로 기재되어 보내 주십니다) 학교로 도착하였고, 잘 챙겨 놓으셨다가 입학허가서만 비자 인터뷰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보험도 미리 들면 좋긴 한데 어차피 맨 마지막에 비자 수령할 때 필요한 거라 꼭 미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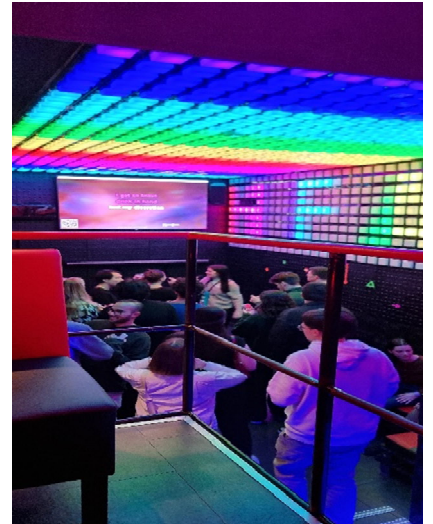
비자신청만 잘 하고, 무사히 수령했다면 사실상 교환학생의 준비 80퍼센트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따로 추가적인 서류준비나 해야 하는 일은 없었고 출국 할 때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거주확인서, 보험증서, 여권사본, 증명사진2매 이렇게 챙겨서 갔어요~.

저의 경우 학기는 2월 둘째주부터 시작됐고, 첫째주에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ot, 학생증 만들기, 교환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주간에 외국인 친구들 정말 많이 사귄 수 있으니 교류를 원하신다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됩니다! 인간빙고게임, 펌퀴즈, 프라하성투어 등등 재미있는 프로그램 많아요^^ 그리고 이 기간에 자신이 무엇을 들을 지 과목을 최종적으로 정해서 제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도 수강정정기간이 있어서 첫 수업 들어보고 안 맞다 싶으면 정정기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도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ESN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활동들 많으니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고 재미있는 체험을 원한다면 참여하세요)

CZU에는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수업방식에 따라 나뉘는 weekly 와 block 수업이 있다는 것이죠. Weekly는 말 그대로 주간에 1번씩 2시간 정도씩 수업을 꾸준히 듣는 것이고, Block은 정해진 기간 5일동안 하루 5시간 이상씩 집중적으로 박세게(?) 듣는 수업입니다(수업마다 상이함). Weekly 수업을 5일로 압축해 놓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으니 학기 첫 주간에 수업계획서 보고 자신의 패턴에 맞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Block수업을 들었는데 정말정말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덕분에 수업이 없는 시간들을 이용해 부담 없이 여행 많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체코 소재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CZU만큼 Block수업이 많고 다양하진 않았습디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으세요 후후

각자의 수업표대로 수업을 듣다 보면 2월 말쯤 기존에 제출했던 LA(Learning Agreement)의 과목명을 최종적으로 수정하여 재제출을 하라는 안내 메일이 옵니다! 물론 초반의 수강계획서대로 과목을 신청하였다면 수정할 필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 수강정정을 하여 새롭게 LA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림대학교(home university)의 서명도 필요하니 미루지 마시고 메일을 받는 즉시 바로 수정하여 학교 서명 받아서 제출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종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각자 수업이 끝나는 대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학생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재 시험이나 이변이 없는 경우 제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늦어도 5월 말, 6월 초에 끝났습니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 체계도 잘 잡혀 있었고 메일에 대한 응답도 빨리 해주시는 편이라 딱히 절차에 있어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학생들 편의를 많이 봐주시려고 했고 학교 수업 신청에 관한 정보들도 메일로 상세하게 안내 받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학생증은 도서관에서 발급, 발급 시 현금필요 / ESN주관 캠퍼스투어 행사, 가라오케파티

2. 파견 전 준비 사항 (분량: 0.5~1장)

- 출국 전 준비한 내용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비자 발급 과정, 소요 시간, 유의할 점
- 항공권 예약, 현지 도착 후 숙소까지의 이동 방법
- 가져가면 유용한 생필품, 교통카드, 통신 등 현지 생활 준비물

①비자발급

비자 발급이 교환학생을 준비하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체코의 경우 비자 발급되기까지 시간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 했을 때도 꽤 오래 걸린다는 후기 글들을 많이 봐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파견교로부터 숙소 확인서를 보내주신다는 메일을 받자마자 바로 체코대사관에 비자면접 일정을 예약했습니다. 비자면접 예약 메일을 보내면 답장 오는 기간까지 포함하여 적어도 1주 정도 후에 예약이 잡히거든요. (*단,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기간이 개개인마다 모두 차이가 있고, 면접 당일에는 파견교로부터 우편으로 오는 숙소확정서가 실물로 존재해야 합니다. 간혹 급한 마음에 미리 면접 예약 했다가 확정서가 오기 전 면접이 잡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면접은 다행히 이르게 본 편이고, 비자가 2달정도 후에 나와서 살짝 불안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네요.

11월 7일-비자인터뷰 예약메일 보냄.

11월 21일-대사관 방문하여 인터뷰 진행(한국인 직원 분 부재 시 영어로 면접)

1월6일-비자 승인 메일 받음.

1월15일-대사관 방문하여 비자 수령.

비자 승인은 접수한 순서대로, 면접 본 순서대로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친구들과 다 비교해보니 개개인마다 모두 차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빠르게 인터뷰일정 잡길 추천 드립니다..!

②항공권

항공권 같은 경우 프라하 직항편 왕복으로 미리 발권하였어요. 짐도 많고 경유랑 가격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직항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기는 공식적으로 6월 30일 끝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배짱이었는데 그 전에는 당연히 끝날 거라고 판단해 6월23일로 귀국편까지 한 번에 끊었어요. 왜냐하면 편도랑 왕복이랑 가격차이가 적어서 경제적인 부분을 택하고 혹시 모를 리스크를 감수했습니다. *ISIC학생증 할인으로 외항사들 중에 무료 수화물(대략30kg)이나 항공권 할인을 주는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경유밖에 없지만 가격적 매력이 크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③이동방법

프라하 바츨라프하벨공항은 규모가 엄청 큰 편은 아니지만 편의시설이 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공항 자체가 시내와 멀지 않아서 체력만 있으시다면 일반 시내버스로 환승 2번정도 하여 1시간 정도면 기숙사 이동 가능합니다. 버스나 트램 자체가 워낙 넓고 잘 되어있어서 캐리어 들고 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장시간 비행이고 짐도 많으니 볼트나 우버 앱 이용해서 숙소까지 이동하시는 것 추천 드립니다. 공항 앞 택시를 타도 괜찮아요. 미터기도 있어서 바가지 위험은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버디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줬는데 볼트를 타자는 제 말에 대중교통 타는 법을 어서 배우는 편이 좋겠다고 버스표를 구입해 강제로 버스에 태웠습니다. 정말 덕분에 버스,트램,지하철까지 첫날부터 다 타 본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8시간 시차를 극복하고 짐 2개이상 들 체력이 있으시다면 대중교통 추천,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볼트,택시 이용하시길 바래요. 볼트 같은 경우 학교까지 약 2만원정도 나옵니다.

④통신

체코 교환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Vodafone 매장 방문하여 무제한 요금제 유심칩 구매했습니다. 단, 학교에서 먼저 ISIC 국제학생증 만든 후 핸드폰 매장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학생증을 제시해야 학생할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인이 많이 된답니다. 유심칩, esim 둘다 있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체코에서는 데이터,전화,문자 무제한이고 주변 유럽 여행 시 자동 로밍 되고 한 달 최대 60GB 사용 가능합니다. 경험에 따르면 여행가서 아무리 로밍 많이 터트려도 60기가 쓰기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넉넉합니다. 다양한 가격옵션이 있으니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⑤출국 전 준비물

요즘 세상이 세상인지라 사실상 웬만한 물건을 깜빡 잊고 왔다 해도 여기서 다 구할 수 있으니 놓고 온 물건이 있다고 상심하지 말아요. 그래도 직접 생활해 보면서 가급적 미리 챙기면 좋을 몇 가지 준비물 적어보겠습니다.

-**전기장판**(여기는 한국어 아닙니다. 보일러가 없습니다.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건조한 라디에이터뿐이에요. 한국인은 역시 등이 따뜻해야 잠이 잘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쇠젓가락**(나무젓가락은 많이 팔지만 쇠 젓가락은 구하기 힘들거나 비싸요. 그래도 혹시나 필요하시면 한국 마트가서 구매하시면 돼요 일반 마트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어요 경험담)

-**멀티어댑터**(제가 다년 본 국가중 영국,스위스,몰타는 일반 다른 유럽국가랑 콘센트 모양이 달라 현지에서 계속 구매했습니다..ㅠ 멀티어댑터 하나 챙기셔서 이 비용 아끼시길 바랍니다)

-**얼큰한 국물 불력국**(유럽에 스프는 많지만 국은 없다는 것 아시나요.. 생활 4개월차부터 국물이 먹고 싶어져 열심히 육수 내서 만들어 먹었는데 불력국 가져오시면 간편하게 느낄거림 잡아주는 식사 할 수 있으니 공간여유가 있다면 챙기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필수적이면서 최대로 실용적인 물품을 적어봤는데요, 사실 해외에 나갈 때 여권과 돈만 있으면 준비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못 챙기신 물건이 있어도 웬만한 것은 다 구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프라하에는 한인마트도 꽤 많아서 비싸긴 하지만 필요한 것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다폰 매장은 팔라디움이나 안델역 추천. / 젓가락 챙기기 필수 (저는 없어서 룸메가 빌려줬어요..ㅎ)

3. 수업 정보 (분량: 1장)

- 교환학생으로 수강한 수업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 수강한 과목과 각 과목의 주요 내용
- 수업 분위기 (예: 수업별 학생 수, 발표·과제 중심 등)
- 수업 난이도, 어학 능력 요구 수준

①수강과목

- Theory of Management
- Management Skills
- Trade and Commerce
- Human Resource Management

이렇게 총 4과목의 경영전공수업을 들었어요. 경영이론 같은 경우 해외에서는 어떻게 무슨 내용을 다룰지 궁금해서 신청했고, 인적자원관리와 기술경영, 그리고 무역수업은 한국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이론 같은 경우 난도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 내용도 '이론'관련 수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웠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다른 과목들에 비해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외 나머지 3개 과목은 처음 듣는 분야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경영에 관심이 많아 다행히 내용은 다 흥미 있었고, 배울 점도 많았어요.

'Theory of Management'의 경우 각 고전경영이론부터 현대까지 이론을 배우고 경영의 틀을 배우는 수업이라 부담 없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경영학과 수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따로 팀플은 없었고 출석, 1번의 과제, 1번의 시험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꼭 경영학과가 아니더라도 이 수업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으니 추천 드립니다.

'Management skills'는 경영의 기술에 관한 내용위주의 강의식 수업이었습니다. 경영수업의 특성상 소수인원의 과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들었을 때 60명정도 교환학생들이 수업을 들었고 4-5명 다국적으로 팀을 이뤄 '기업의 기술경영'을 주제로 팀프로젝트 활동 있었습니다. 학생 모두가 발표해야 했고 출석과 팀플, 시험으로 성적 산출되었어요! 과제는 따로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초빙교수이셨는데 친절하시고 내용도 할만한 난이도 였습니다. 무엇보다 시험이 크게 어렵지 않아서 발표에 부담 없으시면 이 과목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담 있더라도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함께 팀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 한 번쯤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Trade and Commerce'도 교수님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만약 여기 왔는데 저 과목이 있고 교수진 이름에 'Ricardor'가 있다? 그럼 무조건 이 수업 들길 바랍니다! 시험도 있고 중간 과제도 있고 팀플도 있는데 정말 다 유익한 활동이라고 느껴질 만큼 좋았던 수업입니다. 과제와 팀플, 시험 모두 난도가 크게 높지 않았고 무엇보다 상업과 무

역의 일부를 배운 게 아니라 큰 틀을 배워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수업이었다는 점에서 추천드립니다. 세계의 상업에 대해 스스로 생각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Human Resource Management’ 는 어려웠습니다. 경영이론과 같은 교수님이셔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한 제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수업 내용은 그래도 흥미 있고,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시험이 꽤 어려웠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에 응하셔야 합니다. 시험은 경영이론과 마찬가지로 객관식+서술형 문제(300자이상) 있습니다. 1시간안에 서술형 영어로 쓸 수 있으려면 무조건 그 답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정말 저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 수업이지만 적어도 과제를 통해 인적자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끔 만들어준 수업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워낙 관심이 많던 분야라 남는 것은 가장 많은 수업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출석, 과제1번,시험1번으로 성적 평가됩니다. 경영 수업이지만 팀플이 없다는 점이 어찌면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수업 중 팀플이 2번 있었지만 성적 반영x).

경영학과 수업 답게 소규모 인원의 수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적어도 50명 이상이었고, 강의실도 항상 넓은 곳에서 듣게 되어 부담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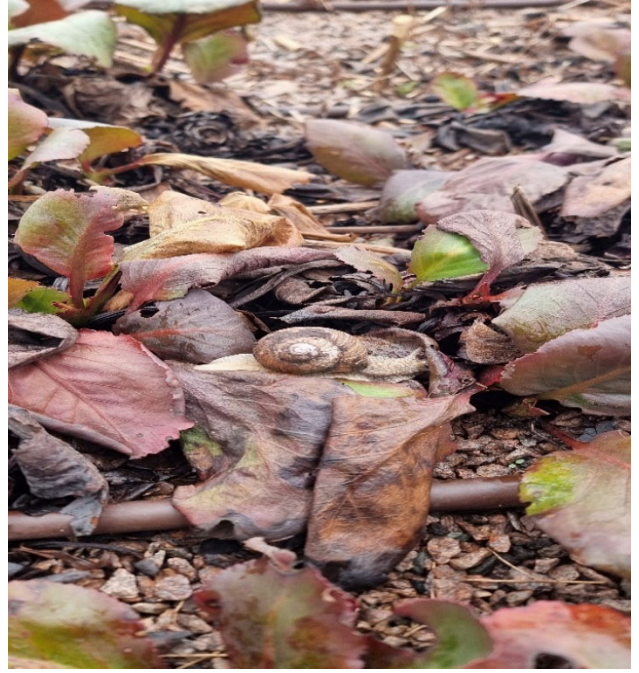
②어학능력수준

저는 지원 당시 기준 토익 845점이었고, 영어를 정말 잘하는 편이 아니라 팀플이 항상 떨렸습니다. 말하기도 약하고 듣기도 약해서 정말 최대한 가기전까지 연습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수업시간이 되고 각국에서 온 다른 교환학생들과 영어로 대화하면서 토론을 하고 과제를 해 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저한테 꽤 긴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말도 많이 못하고 놓치는 부분도 많았는데 점점 이런 모임이 익숙해지니 영어도 들리고 자연스럽게 제 의견도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같이 팀 활동을 했던 친구들의 격려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인출신 교수님께서도 계속해서 틀려도 되니 일단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신 덕에 발표도 어찌어찌 잘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기는 차차 실력이 늘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기준으로 듣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영어를 알아들어야 과제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수업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최소한 상대의 말 80퍼센트 이상은 이해해야 무탈히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③수업난이도

제가 생각하는 경영학과 수업의 최대 장점은 누구나, 어느 학과나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경영이라는 개념자체가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 들어본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으로 배우지 않고 경영이라는 큰 개념을 포괄적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회계,재무 논외) 수업 자체의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는 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영대 강의실, 대부분 대형 강의실 / 경영대건물 앞 작은 화단에 자주 출몰하는 귀여운 달팽이

4. 캠퍼스 생활 정보 (분량: 1~2장)

- 학교 안팎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주세요.
-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 캠퍼스 시설 및 서비스
- 필드트립, 동아리, 학생회 등 참여한 활동
- 학교 주변 맛집, 쇼핑 장소, 관광지 등 유용한 지역 정보

①기숙사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가지 못해서 제가 느낀 대로 세세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우선 CZU의 경우 기숙사는 2가지가 있어요. 학교 내부에 있는 기숙사(A동부터 JH동까지 여러 개 있는데 보통 교환학생/에라스무스 학생들은 JH에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가 있고, 시내 쪽에 위치해 있는 WEST기숙사가 있어요.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배정받은 JH에 대해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학교내부에 있다 보니 수업 갈 때, 그리고 학교 도서관, 헬스장, 수영장 등 학교시설 이용이 너무나도 용이합니다. 2인1실 시스템이고 옆방과 화장실 공유로 서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방은 2인1실이지만 중간에 화장실은 4인1화장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꽤 불편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용하는 시간도 자주 겹치지 않고 서로 배려하면서 사용해서 크게 문제 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인덕션과 냉장고가 방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요리 좋아하시거나 해 드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자기 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비용적 부분에서도 학교 내부 기숙사가 WEST기숙사 보다 저렴합니다!

WEST기숙사의 경우, 시설이 다소 신축이다 보니 깔끔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프라하 시내와 가까워서 밤 늦게 까지 중심에서 놀다가 숙소 들어가는 것에도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주방시설이 방마다는 없지만 층마다 준비 되어있고 오븐,전자레인지까지 구비되어 있어요. 화장실은 방마다 있어서 2인에서 1개 사용 가능합니다. 대신 깔끔하고 위치 좋은 만큼 가격은 학교 기숙사보다 좀 더 비싸다는 것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기대를 안 하는 성격이라 아무 기대 없이 JH기숙사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더 만족스러웠어요. 시설만 조금 낙후된 것을 제외하면(다들 낙후되었다고 하는데 제 기준 그렇게까지 낙후되지 않았어요.) 침대 시트도 2주에 한번 씩 교체 가능하고, 세탁기 사용료도 WEST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무엇보다 학교 수업 들으러 갈 때 너무 부담이 없었어요.(*참고로 학교에서 WEST기숙사까지 대중교통으로 35분정도 소요됩니다.)

한림대학교의 경우, CZU학교측에서 JIH기숙사에 입실할 의향이 있는지 메일로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고 편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다 보내지는 이메일 인 줄 알았는데 여기와서 들어보니 방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학생이 이메일을 받은 건 아니더라고요. 메일을 따로 못 받았거나, 혹은 JIH에 살고 싶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WEST기숙사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과정이 또 하나의 일거리로 생각되어 CZU측에서 온 메일에 바로 답장하고 여기로 입실하게 되었네요. 정말 후회하지 않고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학교 내부 기숙사 선택 할 것 같습니다!

②도서관&학생식당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도서관 매니아 였던지라 도서관 분위기 파악을 잘합니다 ♫. 학교 내부에 도서관이 있는데 사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큰 열람실 기준 30명정도 널찍한 칸막이 책상에 앉을 수 있고 또 30개 정도의 컴퓨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도서관이 그렇게 까지 인기가 많지 않아서 시험기간 제외하면 항상 언제 가든 자리가 한 두 개 썩은 있어서 공부하다 올 수 있었어요. 차분한 분위기고 자리마다 콘센트와 스탠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리도 촘촘하게 붙여 놓은 것이 아니라 쾌적하게 공부 할 수 있어요. 꼭 공부를 안 하더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편한 의자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월~금 오전8시~오후8시까지 운영하고 금요일은 오후 4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열람실을 제외하고도 2층에 휴게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노트북 작업하는 학생들도 많고 카페도 하나 있으니 심심하거나 조용하게 쉬고 싶으실 때 여기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

여기서 학생식당은 **MENZA**라고 불리는데 저렴한 가격에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식당 처럼 여러 메뉴가 준비되어 있고 자신이 원하는 라인에 가서 음식 받고 난 후 마지막에 계산대로 가서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ISIC카드가 있으면 10%씩 할인 받을 수 있으니 갈 때 꼭 학생증 지참 잊지 마세요~!

참고로 학생식당 같은 층에 교직원,교수들을 위한 식당도 있는데 여기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대신 학생 할인은 못 받습니다!

음식 맛은 다 괜찮았고, 가끔 떠올리는 음식은 있었어도 맛있어서 못 먹겠다 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격은 보통 5,500~8,000원 사이로 만 원 넘지 않아요. 메뉴는 매일 바뀌고 가성비 있는 학생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③캠퍼스시설

유럽 건물은 예쁘고 고딕한 대신 그만큼 신축의 매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산 대학교 건물 너무 신식이고 내부도 학생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쾌적함 무엇 하나 빠지지 않게 인테리어 되어있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학생식당 MENZA앞에 학생증을 태그 하면 **무료로 신선한(?)생수**를 얻을 수 있는 정수기가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큰 매력입니다. 유럽에서 수도물을 마시는 경우가 흔하지만 생소한 우리에게 이 정수기는 한 줄기 빛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정수기로 물 사먹는 비용 많이 아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심지어 물 너무 신선해서 맛있어요. 꼭 학생증 만드시고 여기서 물 받아서 드세요~.

④쇼핑

체코 프라하에는 다양한 **마트** 브랜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ESCO, KAUFLAND, LIDL, BILLA, ALBERT등 이 외에도 더 있지만 대표적인 대형 마트들입니다. CZU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는 KAUFLAND인데, 버스로 10분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진짜 대형이라 육류,유제품,채소 다 신선하고 다양합니다. 1일 5마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마트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저렴한 곳은 **KAUFLAND**입니다! 딱히 할인쿠폰이나 프로모션이 많진 않는데 이걸 감안하고도 물건이 저렴해요. 질도 당연히 괜찮고요. 그리고 TESCO의 경우 앱 가입을 하고 ISIC카드를 등록하면 주마다 1번씩 10% 할인쿠폰을 발급해 주는데 이게 또 큰 메리트입니다. 물건 자체는 다른 마트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있는 편이지만 할인도 많고, 프로모션은 더 많고, 10%할인 쿠폰도 주니 대량으로 물건 살 일이 있다면 테스코 추천드려요!

정리하자면 채소나 육류를 주로 산다면 KAUFLAND, 유제품이나 칫솔,세제 등 생활용품 쇼핑 시엔 TESCO, 그리고 계

란과 말렌카는 보통 BILLA에서 자주 할인판매 합니다ㅎㅎ 마트 구경도 재미있게 하시고 돈도 아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어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프라하 시내로 나가면(MUSTECK역/국립박물관 근처) 의류점이 정~말 많아요. 사실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인데 우리가 이미 아는 ZARA, H&M을 비롯해 유럽에만 포진되어 있는 NEYYOKER, PRIMAK, HALFPRIce등 저렴한 옷가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체인이라 프라하 곳곳에 있으니 가까운 데로 쇼핑 가시면 되어요. 가격을 예로 들면 가벼운 반팔 한 개에 7,8천원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패스트패션에 동조하는 일이 지만 어쩔 수 없이 가성비 너무 좋은 옷 가게들이니 옷 필요하실 땐 여기로 쇼핑 가세요.

체코에 왔는데 KOZEL흑맥주와 PILSNER URQUELL은 마셔보고 가셔야죠? 딱히 맥주 맛집을 추천하기보단 가게마다 위에 조그맣게 맥주브랜드를 붙여 놓은 가게들이 종종 보이는데 아무데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신선하게 코젤흑맥주, 필스너우르젤. 갓 뽑아낸 것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꼭 이 두 제품이 아니라도 유럽은 각자 가게마다 직접 만든 하우스비어가 흔해요. 여행 다니면서 각 가게의 하우스비어 한 잔 씩 즐겨보는 것도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캠퍼스(학과 건물마다 색이 다른데 경영대는 빨간색) / 무료 정수기 / JIG기숙사(규모가 꽤 커요!)

5. 생활비 및 지출 (분량: 0.5~1장)

- 생활비와 지출 패턴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기숙사 종류와 월별/학기별 비용
- 식비, 교통비, 여행비, 기타 개인 지출 등

비용을 크게 나눠 보자면 기숙사비, 식비, 생활비, 여행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숙사비는 JIH를 이용하였고 하루당 221ck 한 달에 약 6,800ck 정도 지불하였습니다. 한화로 45만원 정도씩 5개월 사용하여 225만원 들었네요. 달마다 지불 해야 하는 인터넷비 80ck있고 세탁비는 당연히 별도입니다!

식비 같은 경우엔 초반엔 외식을 많이 하다가 점점 한식도 먹고 싶고, 비용도 아낄 겸 마트에 가 식재료를 사서 요리를 자주 해 먹었어요. 체코 마트 물가가 우리나라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정말 합리적인 편이라 한 번 장을 보면 2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식비는 외식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전반적으로 거의 120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생활비의 경우 친구들과 놀고, 시내 나가서 쇼핑도 하고, 공연도 보고 그리고 또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될 때 지출되는 비용까지 대략 200만원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닌 편이라 다른 친구들에 비해 숙소에 있는 날이 적어 식비,생활비가 적게 들었어요. 사실 개개인마다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이 비용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것 같습

니다. (*프라하에서 발레, 오페라 등 공연을 볼 때 좋은 좌석에서 봤어요 여기서 비용이 꽤 들었습니다. 가성비 있는 좌석으로 선점하셔서 현장 분위기도 즐기고 돈도 아낄 수 있으시길 바라요)

여행비의 경우 총 15개국 19개 도시를 다녀온 기준, 850만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경비를 아낄 수 있는 호스텔을 많이 이용하였고 호텔은 여행 하면서 6번 정도 이용했습니다. 여행 중 쇼핑지출을 아꼈고 대신 먹을 것 다 먹고 볼 거 다 보면서 즐긴 여행 기준 비용입니다!

이 외에 기타비용까지 합산 하면 대략 교환학생 생활 동안 1400~1450만원 정도 지출하였네요. 사실 경비의 경우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늘릴수도, 줄일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매 여행마다 가성비 있는 호스텔만 이용했다면 최소 50만원은 더 절약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실지 본인 패턴에 맞게 경비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코식 굴라쉬와 마늘스르, 필스너맥주(좌) / 기숙사 간이주방(우) / 스위스여행(하단)



6. 자기평가 (분량: 1~2장)

- 교환학생 경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 교환학생 기간 동안 얻은 점, 성장한 부분
-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왜 필요했는지
-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 극복 방법

‘나’라는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했고, 성장한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크게 제가 얻은 점은 우선 영어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고 듣는 능력만 늘은 것이 아니라 영어를 말할 때의 자신감이 성장하였어요. 학기 초반에만 해도 항상 말할 때 자신 없어서 작게 말하고 단답으로 말하고 아예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영어를 틀려도 괜찮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제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젠 말하다가 멈추지 않습니다. 모르거나 틀려도 그냥 막 말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제 영어부분에 있어 가장 큰 성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확실히 자신감이 생기니 외국인 친구들과 만날 때도, 혼자 여행가서 우연히 만난 낯선 이와 영어로 대화를 할 때에도 더 이상 쭈뼛거리고 대화를 피하려는 쭈글이 자아가 줄어드는 것이 최대의 수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 의사를 확실하게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것에 기분이 너무 뿌듯합니다.

유럽 내 다른 국가들로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대부분의 여행을 일부러 혼자 갔어요. **성장이** 제 교환학생의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도전적인 상황에 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옆에 친구가 있었다면 음식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재미도 더 있었겠지만 자꾸 의지하고 싶어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 아예 원천 차단하고 혼자 부딪혀 보자는 심산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초반에는 가끔 영어듣기를 놓치기도 하고 의사소통도 원활히 안되다 보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점점 저도 모르게 영어도 들리고, 말도 할 수 있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더해 평소에 길치로 유명했는데 혼자 지도 보면서 여행을 다니다 보니 길 찾는 능력도 향상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여행하며 호스텔에 묵을 때마다 만나게 되는 각국의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간접 문화경험을 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느꼈고, 당연하지만 저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 순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영어도 늘 수 있었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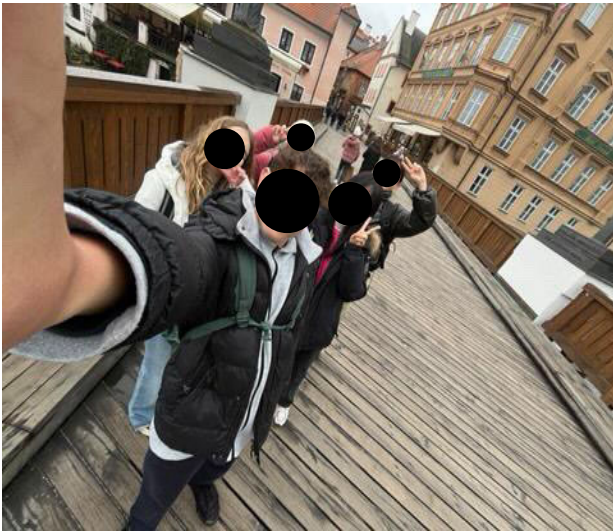
교환학생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이들의 문화와 분위기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다는 것. 한국에 있을 땐 외국사회에 굳이 관심을 갖지 않으니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여기와서 생활하며 가까이서 보고, 대화하고,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 이국의 문화에 대해 꽤 많이 알게 된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소 유럽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환상이나 편견 같은 제 편협했던 생각의 폭이 많이 넓어졌고 수정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친구를 사귀다는 건 저와는 정말 관련 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만날 기회도 크게 없었고, 저들이 나와 친구가 되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와서 정말 의도치 않게 가까운 사이의 외국인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고 예상치도 못했던 다국적 친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꼭 ‘언어’로만 소통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배웠고 서로 진심만 전해진다면 얼마든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이렇게 친구를 사귀고, 연을 맺으면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처음보는 사람에게 말 거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말 해야 하는지도 어렵고 그랬는데, 인간관계에 있어 이런 부분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이 능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 뿌듯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수업이 너무 어려웠을 때 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수업자체의 내용은 괜찮았지만 가끔씩 미국인 교수님의 빠른 설명은 놓친 적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시험을 준비하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시험이 객관식,단답식에 200단어이상의 서술형 2문제가 합쳐진 제한시간 1시간 시험이었는데, 영어도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 내용까지 어려우니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상태였습니다. 그 시험을 준비하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각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운동을 했습니다. 학교에 운동장이 잘 구비되어 있는데 좋아하는 노래를 땀땀하게 틀어 이어폰을 꽂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면서 땀을 흘렸더니 그 순간만큼은 기분도 나아지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이 모든 스트레스는 사실 시험이 끝나니 곧바로 해소되었어요. 사실상 원인이 제거되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아마 평생 저는 이 과목을 잊지 못할 거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그 순간들도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웬만한 어려운 과목을 만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행복합니다 하하.

교환학생은 정말 여러 방면에서 저를 훈련시켜주었어요. 어려운 영어시험을 통해 앞으로 볼 시험들에 면역력이 생겨 강한 정신력을 가지게 되었고, 다국적의 학생들과 대화, 각종 활동, 팀플을 통해 영어를 비롯해 그들의 문화체험을 다양하게 빠르게 해 볼 수 있었고, 주변으로의 많은 여행을 통해 자립심, 책임감, 영어실력, 길 찾기 능력까지 제 자신이 정말 많이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가장 큰 이변은 예전에는 영어로 전화를 절대 못 했고 할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은 영어로

전화할 수 있다는 것. 매우 부듯합니다^^.



■ [자유 서술 (선택 사항)]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결정하기까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예: 복수전공, 졸업요건, 어학능력, 재정적 부담 등

저는 다른 학교에서 온 교환학생들을 기준으로 나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1,2살 차이의 또래들도 있긴 했지만 제가 가장 연장자였어요. 사실 제 주변 친구들은 이미 취업했거나 취업준비를 하고 있어 지금 시기에 교환학생을 오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한가지 확실하게 느낀 건 20대는 20대일 뿐이다 라는 거였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라는 말을 아무리 많이 봐도 직접 체험해 본적은 없는데 이번 교환학생을 통해 비로소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너무 늦었나' 혹은 '내 나이가 너무 많아 부담스러운데' 식의 생각으로 교환학생을, 혹은 어떠한 일을 하길 주저하고 계신다면 절대 늦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고, 오지 않았으면 그게 더 후회했을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저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고,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이 생각은 더욱 확고해 졌습니다. 교환학생은 단순히 언어습득, 문화 교류, 다양한 현지 경험을 넘어 제 인생의 자존감과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을 더 높여주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부디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적어도 '나이'가 고민의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